

社

告

금년은 吉下 宋鎮禹 선생이 불의의 흉탄에 서 거하신지 5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.
 해방을 전후하여 항일독립과 민주건국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선생의 50주기를 맞이하여 東亞 日報社는 재단법인 吉下 宋鎮禹 선생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고인에 대한 추념식 및 추념강연회를 갖습니다.

일제하의 고난과 광복 후의 역경을 겨레와 함께 극복하면서 나라 세우기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헌신한 吉下 선생의 높

古下 50주기 追念강연회

29일 오전 11시 本社 충정로 사옥

은 뜻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이날 행사에 여러 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.

▼ 일 시 1995년 12월 29일(金) 오전 11시
 ▼ 장 소 1. 동아일보사 충정로 사옥 18층 강당
 ▼ 주제 및 연사

▲ 일제하 古下의 사상과 노선(沈之淵 경남대 정회과 교수)

△ 해방정국에서의 古下의 사상과 노선(金學俊 달북대 이사장·정치학 박사)